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70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 같이

-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대표기도 ----- 말은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되셔서 오직
주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위로와 격려가 만남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사도행전 2:37-47(신약 190쪽) ----- 다 같이

37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
든 먼 제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
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
고 45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하나님을 찬미
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설 교 하나님이 주신 새 시작 ----- 설 교 자
(뒷면에)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563 예수 사랑하심을 ----- 다 같이

-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가게 하시네
 -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가게하소서
-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추석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전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됩니다.(37-41)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찢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여 용서와 새 삶을 받았습니다. 마치 추석이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듯이, 예수님은 회개한 우리 인생에 참된 새 출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담 이후 무너진 인간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찢림이 있었나요?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42-47)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잘 지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백성, 새로운 가족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족이 모이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공동체의 축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됩니다.

☞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로 어떻게 서로를 돌보며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석에 음식을 나누며 함께 웃을 때, 이것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서로를 돌보며 힘써 예수를 믿고 전하며 생명을 품고 낳는 새로운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2. 말씀과 기도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3.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